"수출 늘었지만 내수는 부진"

현대경제연구원, 최근 경제동향서 "원인은 '고용불안' … 고용 확대 주력해야"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수출·내수 간 경기 디커플링이 시작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상 출발점에 있는 투자 및 고용의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수출·내수 디커플링의 시작)'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들어 수출 단가와 수출 물량이 모두 늘면서 수출 경기 회복세는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출 증가율은 2016년 11월 2.3%, 12월 6.3%, 2017년 1월 11.2%, 2월 20.2%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1월과 2월에는 수출 물량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다.

하지만 내수 부문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소비 절벽이 올해까지 지속되고 있는데다 향후에도 물가 불안과 심리 위축 등으로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이후 내구재 소비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이 불안 요인으로 지적됐다. 내구재 소비는 지난해 12월 -1.6% 감소했고 올해 1월에는 1.6% 증가하는데 그쳤다.

수출 회복에도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는 고용 불안이 꼽혔다.

한산한 롯데면세점 지난 3일 롯데면세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롯데그룹의 고고도미사일(THAAD·사드) 부지 제공과 관련,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롯데면세점 홈페이지가 중국 지역의 IP를 사용한 디도스 공격을 받는 등 중국 당국의 보복 조치가 잇따르면서 롯데그룹의 중국사업 전반에 걸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12월(28만9000명)과 올해 1월(24만3000명) 2개월 연속 20만 명대에 머물렀다. 실업률이 3.7%에서 3.8%로 상승하는 등 실업 관련 지표도 개선될 조짐이 없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수출 경기 회복세가 강화될 경우 내수로 회복 기조가 확산될 수도 있지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중국 시장 침체 등이 현실화되면서 수출·내수가 동반 부진에 빠질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대외 불확실성 차단을 통해 수출 경기 회복기조를 안착시키는 한편 투자와 고용 확대를 통해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은 조언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에 대한 수출 회복이 전체 수출 경기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핵심 요인이기 때문에 최근 한한령과 관련된 중국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한 통상 마찰 방지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대형스쿠터 2017년형 포르자 출시

혼다코리아, 콤바인드 ABS 채용… 판매 가격 765만원

혼다코리아는 혼다의 첨단 브레이크 시스템을 탑재한 2017년형 포르자(FORZA)를 출시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2017년형 포르자는 기존 CBS(Combined Brake System) 사양에 ABS(Anti-Lock Brake System) 기능을 추가한 혼다의 첨단 브레이크 시스템인 콤바인드 ABS(Combined ABS)를 채용했다.

해당 시스템은 제동시 최상의 제동력을 계산하여 전후 브레이크에 자동적으로 배분하는 시스템이다. 탑승자는 급제동시 위험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전후 브레이크를 최대치로 활용할 수 있다.

포르자는 지난 2013년 8월 국내 출시한 대형스쿠터다. 수냉식 SOHC 4밸브 엔진을 탑재해 1ℓ당 35.3㎞의 연비를 실현했고, 279cc의 배기량으로 고속 주행에 충분한 출력을 발휘한다.

아울러 시트 아래 2개의 풀 페이스 헬멧 수납이 가능한 대용량 수납공간과 프론트 패널 양쪽에 별도의 수납공간을 갖춰 실용성을 더했다. PGM-FI전자제어 연료분사장치 프론트 페어링 등으로 편안한 주행이 가능하다.

신형 포르자는 화이트, 블랙, 실버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판매 가격은 기존과 동일한 765만원(부가세 포함)이다. /뉴시스

스마트폰 OLED vs LCD 디스플레이… 승자는

삼성·애플 OLED vs 기타 제조사들 LCD… 공급 제한 때문

올 상반기 프리미엄 스마트폰 신제품들이 쏟아져나오면서 각 제조사들의 플래그십 제품 디스플레이가 OLED와 LCD로 나뉘고 있는 가운데 어느 쪽이 소비자들에게 더 큰 호응을 얻을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3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중소형 OLED 패널의 공급이 제한적인 만큼, 올해 출시되는 플래그십 스마트폰 제품들에도 OLED가 탑재되는 비중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삼성, 애플 등 점유율이 높은 제조사들에서는 OLED를 채용하지만 LG전자, 화웨이, 소니 등은 LCD 플래그십을 내놓는 추세다.

지난달 27일부터 3월2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7'에서 공개된 신제품들은 대체로 LCD 패널을 적용한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이었다. 글로벌 점유율 1,2위를 다투는 삼성과 애플이 참여하지 않은 결과다.

이는 스마트폰 OLED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OLED를 공급해줄 패널 업체가 아직까지 삼성디스플레이로 한정돼 있는 탓이다. 이에 OLED를 적용하고 싶어도 물량이 부족해 적용하지 못하는 제조사가 많다는 설명이다.

이순학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직까지 OLED 패널 공급이 제한적이다 보니 LG전자, 화웨이, 소니 등 2위권 제조사들이 LCD를 적용한 플래그십 모델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삼성과 애플은 올해에도 OLED를 적용한 플래그십 모델을 내놓을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8은 5.8인치 AMOLED를 적용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고 애플 역시 아이폰 신제품에 OLED 패널을 채용하게 되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OLED 디스플레이의 차별화가 올해 스마트폰 판매량에도 영향을 끼칠 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LCD 제품들이 OLED인 프리미엄 제품군에 비해 가격으로 경쟁력을 꾀할 수 있다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LG디스플레이가 중소형 OLED 패널 투자에 들어가는 등 부품 시장의 불균형에 따라 올해 스마트폰 시장의 판도도 갈릴 것"이라며 "삼성과 애플 외에는 아직까지 LCD 제품들이 많은 만큼 판매량에 영향을 줄 지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OLED 패널 공급 추세에 따라 차후에도 더 많은 업체들이 OLED 패널을 적용하리라는 예상도 나왔다.

이 연구원은 "다수의 중국 업체가 많은 물량은 아니더라도 OLED 패널 스마트폰을 꾸준히 출시하고 있다"며 "색감이 좋은 OLED의 강점이 차별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6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2개월째 감소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지난 3일 6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IBK기업)에 따르면 지난달말 주담대 총잔액은 377조8526억원으로 전월 378조7142억원 대비 8616억원 줄었다.

이로써 6대 은행 주담대는 지난 1월말 2015년 6월 이후 1년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뒤 2개월 연속 뒷걸음질을 이어갔다.

은행별로 보면 지난달 말 KEB하나은행의 주담대는 65조3563억원으로 전달(66조261억원) 보다 6698억원 줄었다. 6개 은행 중 감소폭이 가장 크다.

신한은행(5883억원)과 국민은행(5649억원)의 주담대도 5000억원 이상 감소했다.

반면 우리은행의 주담대는 81조9099억원으로 전달 81조390억원 보다 8709억원이 늘었다.

기업은행(851억원)과 농협은행(54억원)의 주담대 잔액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강화한 가운데 봄 이사철을 앞두고 주택 매매시장에 한파가 불고 있어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줄어든 모습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4380건으로 4년 만에 최저치를 보인 지난 1월 거래량(4518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주택시장은 연초가 비수기이기 때문에 주담대 잔액도 함께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며 "단 최근 대출금리 오름세가 한풀 꺾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6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528조6655억원으로 전달(528조8937억원)보다 2282억원 줄었다. /뉴시스

지난해 은행권

새희망홀씨 대출 2조원 돌파

전년대비 15% 이상 증가… 목표는 미달

지난해 은행권이 취급한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이 1년 전보다 15% 이상 증가해 2조원을 돌파했다.

다만 당초 계획한 목표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은행은 약 19만명에게 2조2720억원의 새희망홀씨 대출을 했다.

전년 대비 3000억원(16.0%)이 증가한 규모이지만 연간 목표액인 2조5000억원은 밑돌았다.

2010년 11월 새희망홀씨 출시 이후 누적 지원 규모는 11조7000억원, 대출자는 114만명이다.

은행별 증가액은 국민 1257억원(35.9%), 신한 1028억원(27.9%), KEB하나 772억원(28.7%), 씨티 220억원(32.6%) 순으로 나타났다.

새희망홀씨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서민을 대상으로 한다.

2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으며 금리는 통상 연 7% 내외, 최고 10.5%다.

대출 취급액의 70% 이상은 7등급 이하 저신용자와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차주에 지원한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협의해 올해 새희망홀씨 대출을 3조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연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1인당 대출한도도 2분기(4~6월) 중으로 500만원 늘릴 계획이다. /뉴시스